

중국인민의 해방전쟁승리에 기여한 조선인민의 역사적공적

박사 부교수 엄 혁 민

1. 서 론

주체34(1945)년 8월 1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의 승리로 일제의 식민지기반에서 해방된 조선인민은 새 민주조선건설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광활한 령토와 수억만의 인구를 가진 조선의 름방인 중국에서는 일제의 항복선언이 발표되기 바쁘게 국공대결이라는 또 한차례의 내전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국내전쟁을 개시할 당시 장개석도당은 강력한 비행대와 해군을 포함한 430여만의 대군을 가지고있었으며 중국 전 인구의 70%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사는 지역을 통제하고있었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군대는 120만명의 보병밖에 없는데다가 오랜 기간 일제와 항전을 하다보니 무장장비수준도 매우 한심한 형편에 있었다.

수적으로나 군사기술장비에 있어서 비할바없이 월등한 국민당군대와와의 싸움은 중국공산당에 있어서 힘에 겨운 전쟁이고 엄혹한 시련이 아닐수 없었다.

제3차 국내전쟁이라고도 부르는 이 전쟁에서 중국공산당이 승리할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웠으며 지원을 주겠다는 나라도 없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해방직후 중국인민해방군이 동북지방에서 불리한 형편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들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건국의 첫걸음을 뗀 매우 어려운 때였지만 중국인민의 해방전쟁을 지원하는것을 응당한 국제주의적의무로 간주하고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였습니다.》(《김일성전집》 제11권 363페이지)

이 글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중국인민과 어깨걸고 중국 동북과 관내의 광활한 지역, 최남단의 해남도에까지 나가 중국인민의 해방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한 역사적공적에 대하여 사실자료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해설하려고 한다.

2. 본 론

조중 두 나라 인민들은 오랜 기간 공동전선을 형성하고 일제를 반대하여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일제가 패망한 후 조선인민은 중국혁명을 돕는것을 숭고한 국제주의적의무로, 혁명적의리로 간주하고 주도적이고도 결정적인 역할로 중국인민의 해방전쟁승리를 추동하였다.

조선인민은 무엇보다도 중국공산당이 동북을 차지할수 있는 강력한 군사정치적지반을 마련해주었다.

항일전쟁승리후 동북지방은 중국혁명에서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중요한 전략적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동북지방을 누가 차지하는가 하는것은 전반적전쟁국면을 좌우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

일제의 패망직후 소련과 《중소우호동맹조약》을 체결하고 만주에서의 합법적권리를 행사할수 있게 된 장개석도당은 동북의 《행정접수》를 위하여 국민당정부의 주요인물들과 적지 않은 인원들을 장춘과 심양을 비롯한 매 도시들과 주요거점들에 파견하는 한편 온갖 반동세력들을 규합하여 동북에서 저들의 기반을 닦으려고 책동하였다.

소련외무상 몰로토프와 국민당 외교부장 왕세걸이 수표한 《중소우호동맹조약》에서는 동북지방과 관련하여 소련은 만주를 중국의 일부로 인정하고 만주에서 국민당정부의 완전한 주권행사를 존중한다고 하였으며 국민당측은 대련에서 소련의 리익을 보호하고 대련항을 자유무역항화하는데 동의하였다.

이와 함께 조약에는 일제의 항복후 3개월안으로 동북지방에서 소련군대가 철수하기로 명기되었다.

이 조약은 중국이라는 커다란 호수에 떨어진 큰 돌맹이였다.

일제의 무장을 해제하고 그 강점지역을 넘겨받게 된 유리한 조건에서 현대적무장을 갖추고 동북지방으로 밀려들고있던 장개석국민당에 있어서 이 조약은 그야말로 《굴러온 북》이였다. 반면에 장기간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힘과 재력을 아낌없이 소모해버린 데다가 무장장비도 막대한 조건에서 힘겨운 투쟁을 벌리고있던 중국공산당에 있어서 이 조약은 《된서리》였다.

미국으로부터 수십억US\$에 달하는 막대한 군사원조를 받고 미국제무기로 장비한 장개석국민당군은 2개 군단의 병력을 산해관 서쪽계선에 배치하여 인민해방군 부대들의 동북진출통로를 차단하는 한편 무력을 동북지방에 대대적으로 투입하였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은 《중소우호동맹조약》의 제약을 받는데다가 동북지방에서의 그 력량이 매우 미약한것으로 하여 동북을 탈취하려는 장개석도당의 책동에 주동적이고도 적극적인 행동으로 대처하지 못하고있었다.

1945년 11월과 1946년 1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동북국에 보낸 결정과 전보 문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어있다.

《우리가 전 동북을 점령하려고 한 기도는 불가능한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이 동북지방에서 일정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에게 근거지가 없으면 전쟁의 승리가 있을수 없다. 그러므로 병력을 분산하여 군중을 발동시키고 비적들을 숙청하며 근거지를 창설해야 하며 또 병력을 집중하여 적들의 공격을 타파함으로써 근거지창설을 엄호하여야 한다. 이 량자는 꼭 병진시켜야 한다.》(《길림지방당사연구문취》 중문 길림인민출판사 2001년 13~14페이지)

이처럼 중국공산당앞에는 전국해방을 이룩하는데서 전략적요충지대로 되는 동북지방을 위력한 근거지로 꾸리며 여기에서도 군중적기초가 좋고 지리적으로 유리한 연변지구를 군사정치적거점으로 틀어쥐는것이 절박한 요구로 나섰다.

중국공산당이 전반적중국혁명의 승리를 이룩하는데서 관건적고리로 내세운 이 중대한 사업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중국 동북지방에 파견하신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간부들과 그들이 조직한 조선인부대들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훌륭히 수행되게 되었다.

일찌기 대일작전을 결속하던 시기에 전후 중국 동북지방의 정세변화에 대하여 예측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34(1945)년 8월 24일과 9월 15일을 비롯하여 여러 기회에 동북지방에 파견되는 조선인민혁명군 군사정치간부들에게 중국 동북지방을 중국혁명의 강력한 근거지로 꾸리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이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의 우수한 군사정치간부들이 중국 동북의 각지에 파견되어 동북해방을 위한 튼튼한 정치군사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벌리었다.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들은 우선 동북지방에 강력한 무장부대를 조직하였다.

동북지방에서 강력한 무장부대를 조직하는것은 이 지역을 정치군사적으로 튼튼히 꾸리는데서 나서는 선차적이고도 중대한 문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동북지방에 파견되어가는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들에게 무장대오는 항일전쟁에 참가한 사람들을 핵심으로 하고 조종인민들의 우수한 청년들로 조직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각처에서 분산적으로 조직되어 활동하는 인민무장대들을 거기에 인입시켜 무장대오를 짧은 기간내에 급속히 확대하도록 하시였다.

강건, 박락권, 최광, 공정수, 지병학동지를 비롯한 조선인민혁명군 군사정치간부들은 동북지방에 강력한 무장대오를 조직하는것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내세우고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적극 발동하여 무장대오를 조직해나갔다.

조선인민혁명군 군사정치간부들은 군중집회를 열고 동북지방의 정세를 분석한 다음 인민들이 압박과 착취없는 새세상에서 살자면 당장 자기 손에 무장을 잡고 덤벼드는 원썬들과 싸워야 한다고 호소한데 이어 청년들을 적극 발동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조직사업을 하였다.

무장대오를 조직하기 위한 조선인민혁명군 군사정치간부들의 정치선전은 연길에서만 아니라 훈춘, 왕청, 도문, 룡정, 화룡 등 연변각지에서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특히 조선청년들의 무장대원원열의는 온 동북땅을 휩쓸었다.

당시 출판물자료에 의하면 1946년 5월부터 6월까지 사이에 연변 5개 현에서 3 659명이 입대하였다고 한다.

1946년 6월 연길제2중학교 졸업생들중 1명을 제외하고 전원(1명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이 입대하였다. 연길과 다른 현들에서도 수천명의 중학교졸업생들이 입대하여 전선으로 떠나갔다.《연변조선족자치주개황》 조문 연변인민출판사 1984년 116~117페이지)

그리하여 연변지구를 비롯한 동북의 여러 지역에서 매우 짧은 기간에 수많은 조선인부대들이 조직되고 그 력량은 급속히 확대되었다.

주체34(1945)년 9월부터 그해말에 이르는 기간에 연변지구에서는 길동분구사령부산하에 야전군 2개련대(8 000명)와 군정대학(1 009명), 8개의 보안련대(매련대에 2 000명)로 구성된 큰 규모의 조선인부대가 편성되었고 목단강지구의 목단강군구사령부, 남만지구의 길남분구사령부, 길림지방의 길림분구 제72련대, 할빈지구의 조선인보안련대들이 련이어 조직되었는데 그 력량은 총 25만여명에 달하였다.

조선인부대들이 조직됨으로써 동북지역에서 반동과 토비들의 준동을 제압하고 국민당군의 대규모침공에 대처할수 있는 군사적담보가 마련되게 되었다.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들은 또한 조선인부대에 의거하여 동북지방의 안전을 보장하였다.

일제패망후 연변지구를 비롯한 동북지방에서는 토비화된 일만군정잔당들과 지방토호 등 반동세력들이 장개석특무망의 배후조종밑에 《치안유지회》니, 《동북정진군 5탄》이니 하는 반동기구와 반혁명무력을 조직하여 민심을 소란케 하고있었다.

당시 중국 동북지방에 공산당을 반대하는 각이한 토비무리는 무려 9만명이나 있었다.(중국조선민족발자취총서 5 《승리》 조문 민족출판사 1992년 182페이지)

일제주구와 토비들을 숙청하고 동북지방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은 동북해방전쟁승리의 선결조건으로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중국 동북지방에 파견되어가는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들에게 정권기관들이 무장대오를 비롯한 민주력량을 동원하여 사회질서교란자들을 엄격히 단속하며 토호들과 토비들, 일본군대 패잔병들과 만주괴뢰군 잔여세력들의 준동을 철저히 진압하도록 적극 방조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조선인부대들은 수백명 지어 수천명씩 동지를 틀고 준동하는 반동무장집단을 평정하기 위하여 화룡, 훈춘, 명월구, 라자구, 오도양차, 삼도만, 의란구, 천교령 등 동북의 여러 지역에서 소탕전을 벌려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

대규모대북전으로 1 000여명의 적들을 살상포로한 연길현 의란구전투와 악질적인 안탄장(안진유), 마희산일당 수천명을 괴멸에로 몰아넣은 라자구전투, 로흑산전투 등은 본격적인 동북해방작전에 앞서 조선인부대들이 진행한 대표적인 전투들이다.

조선인부대들은 수많은 전투들을 통하여 주체35(1946)년 7월까지 연변지구를 위협하던 토비들을 완전히 진압하고 각종 포 24문, 중기관총, 경기관총 76정, 많은 군수물자들을 로획하였다.

조선인부대들은 연변에서만이 아니라 남만과 북만지방에서도 반혁명세력을 진압하기 위한 적극적인 작전을 전개하였다.

녕안현에서만도 조선인부대들은 100여차의 전투를 벌려 토비무리들을 완전히 숙청하였다. 중국 동북지방에서 조선인부대들이 진행한 반토비작전으로 토비들은 《고려부대(조선인부대)》라면 맞다들넘도 못하고 벌벌 떨며 줄행랑을 놓았다고 한다.

반토비작전에서의 빛나는 성과로 제3차 국내혁명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중국 동북지방에서는 토비들이 더는 연합된 세력으로 활동할수 없게 되었으며 적들이 바라던 《내용의합》은 파탄되었다. 이것은 수많은 조선혁명가들의 붉은 피로 아로새겨진 승리였다.

이에 대하여 중국도서 《김일성주석과 동북해방전쟁》에는 다음과 같이 써여져있다.

《김일성주석은 일찌기 조선의 군정간부들을 동북에 파견하실 때 그들에게 토호, 토비들과 일본군 패잔병들, 〈만주국〉잔여세력을 진압하는데서 중국동지들을 적극 방조할데 대한 훈시를 주신바 있다. 동북해방전쟁승리에 기여한 김일성주석의 업적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도 있다.》

조선인부대들은 한편 내부에 잠입한 불순적대분자들을 적발숙청하여 연변지구를 군사정치적으로 튼튼히 다지기 위한 투쟁도 적극적으로 벌렸다.

1945년 10월 길동분구사령부가 10여명의 조선청년들을 연길포로수용소에 침투시켜 60여명의 악질주구들을 적발치단하는것으로부터 시작된 일제의 주구청산투쟁은 1930년대초 일제가 1 700여명의 애국자들과 인민들을 집단참살한 해란강대학살사건에 가담한자들에게 대한 군중심판을 계기로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연길에서 진행된 해란강류혈사건성토대회는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연변지구를 군사정치적으로 공고히 다지며 장개석도당을 반대하는 국내해방전쟁으로 인민들을 조직동원하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하였다.

조선인부대들이 연변을 비롯한 동북각지의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동북해방작전을 위한 준비를 성과적으로 갖추수 있게 되었다.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들은 또한 중국공산당을 도와 연변의 당 및 정권기관과 대중단체들을 내오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연변지구에서 당 및 정권기관과 대중단체들을 내오고 광범한 인민들을 묶어세우는 것은 한시도 미룰수 없는 급선무로 나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동북지방에 파견된 조선인민혁명군 군사정치간부들이 민주주의 적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각지 인민들의 사업과 공산당지방조직을 꾸리기 위한 사업, 대중단체조직사업을 적극 협조하도록 하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 군사정치간부들은 중국공산당 동북국과의 밀접한 련계밑에 주체 34(1945)년 10월초 룡정에서 첫 당소조를 조직한데 이어 연길, 왕청, 화룡 등 여러 지역에 당소조들을 련이어 내왔다.

이에 기초하여 중국공산당 연변위원회가 짧은 기간내에 조직될수 있었으며 연변당위원회는 당과 대중단체, 정권건설에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들과 조선사람들의 적극적인 협조밑에 동북지방에서 중국공산당의 기층당조직들이 꾸려지고 부단히 확대강화됨으로써 동북해방전쟁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령도를 실현할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게 되었다.

이와 함께 각 현, 구들에 정부위원회와 노동자동맹, 농민동맹, 청년동맹, 녀성동맹을 비롯한 계층별 대중단체들이 조직되어 광범한 인민들을 묶어세웠다.

연변지구의 혁명력량을 비상히 강화하고 이 일대를 튼튼한 군사정치적거점으로 다지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것은 1945년 9월 연변민주대동맹의 결성이였다.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들은 여러 대중단체들을 조직한 기초우에서 연변지구의 각 계각층 인민대표들을 망라한 연변민주대동맹을 결성하고 정연한 하부조직체계를 수립함으로써 해방된 동북의 전지역에 민주정권을 수립할수 있는 튼튼한 기초를 마련하고 광범한 대중을 해방전쟁의 승리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1946년 2월 20일부 《연변민보》가 연변민주대동맹의 맹원수가 14만 5 000명이였다고 전하였는데(그중에서 조선사람들이 94%를 차지함) 당시 연변 5개 현의 총인구가 85만명이였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이것은 연변민주대동맹이 실로 큰 조직체였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연변조선족자치주개황》 조문 연변인민출판사 1984년 87페이지)

연변민주대동맹의 핵심성원들은 해방전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적영향을 받아 반일투쟁에 참가하였던 공산주의자들과 애국적인민들이였다.

연변민주대동맹의 역할에 대하여 주보중은 《우리 당의 동지들은 연변민주대동맹이 군대를 건설하고 구정권을 개조하고 청산투쟁을 발동하고 토지개혁을 진행하고 국민당특무를 반대하는 등 면에서 모두 결정적역할을 놀았으며 지어 실제적인 정권역할을 놀았다는것을 일치하게 승인해야 할것이다. 당의 정책을 시달하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연변민주대동맹으로부터 오는 그 어떤 저에도 받은적이 없다. 연변민주대동맹은 우리 당의 주장을 찬성하고 우리 당을 협조하였으며 특히 연변의 인민무장대오를 조직하고 각지에서 횡행하던 흉악한 국민당토비들을 숙청하고 전선을 지원하는 등 면에서 매우 큰 동원, 조직적인 역할을 놀았다. 민주대동맹이 일으킨 역사적역할과 공적은 지워버릴수 없는것이다.》(중국조선민족발자취총서 5 《승리》 조문 민족출판사 1992년 707페이지)라고 평가하였으며 연변에서 당사업을 하던 옹문도는 민주대동맹사업에 대하여 《민주대동맹은 당의 령도밑에 있는 군중조직이였다. 동맹은 조선청년들을 동원하여 해방전쟁에 참가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놀았다. 그 당시 연변형세가 비교적 안정하여 전선을 지원하게 된것은 민주대동맹이 중요한 역할을 논데 있다.》(《연변문사자료》 4권 조문 212페이지)고 증언하였다.

이처럼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들과 조선인부대들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연변 지구를 비롯한 동북의 넓은 지역에 강력한 군사정치적거점이 꾸려짐으로써 중국공산당과 해방군은 여기에 발을 붙이고 근거지창설을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었다.

당시 중국의 한 출판물에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10여만명에 달하는 팔로군, 신사군부대들과 2만여명의 중국간부들이 조선인집단구역에 발을 든든히 붙일수 있는것은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들과 조선의 투사들이 당을 건설하고 혁명단체를 건설하고 인민무장대오를 조직하고 민주정권을 수립하여 사업기초를 다져놓고 국면을 타개한것과 같라놓고 생각할수 없다.》

참으로 일제패망직후 동북지방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영향력이 아직은 미약했던 당시의 조건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취해주신 조치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들이 주동이 되어 동북의 광활한 지역에 강력한 조선인부대들과 당, 정권기관, 대중단체들을 조직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이 일대는 동북해방의 믿음직한 군사정치적기지로 전변되게 되었다.

조선인민은 다음으로 중국인민에게 군사적으로, 물질적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하였으며 우리 나라 경내를 동북민주련군의 전략적통로로, 믿음직한 후방으로 보장해주었다.

해방직후 우리 나라는 40여년간에 걸치는 일제식민지통치의 후파로 모든것이 파괴되고 부족한 조건에서 사실 남을 도와줄만 한 형편이 못되었다.

하지만 조선인민은 숭고한 국제주의적의리로 중국혁명의 승리를 추동하기 위하여 필요한것이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 수많은 무기와 전투기술기재, 군수물자를 지원해주었다.

조선인민은 우선 아낌없는 군사적, 물질적지원으로 중국인민의 혁명투쟁을 고무해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동북혁명이 위기에 처하였던 주체35(1946)년 봄 무기를 원조해줄데 대한 중국공산당의 요청을 수락하시고 정규무력건설을 위해 것처럼 아껴오던 10만여정의 각종 무기와 포까지 지원해주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무기와 포들을 동북민주련군에 무사히 도착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단위들에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특별지령을 하달하도록 하시였다.

1946년 5월 당시 중국 동북민주련군의 총력량이 32만명이라고 보면 필요한 무기의 3분의 1이상을 우리 나라에서 보장해준셈이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고결한 혁명적의리를 되새기며 한 일군은 무기가 없어 창이나 곤봉을 총대신 메고다니던 많은 전사들이 총을 받아안고 환성을 올렸고 춤을 추며 기뻐하였다, 감격없이는 볼수 없는 광경이었다고 회상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나라의 홍남비료공장에서 다량의 《황색폭약》을 생산하여 동북해방전쟁의 전기간 보장해주도록 국가적조치도 취해주시였으며 강력한 포병부대와 공병부대를 전장에 파견하시여 동북민주련군의 전투력을 비상이 강화하고 국민당군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하도록 하시였다.

홍남비료공장의 로동계급과 기술자들은 폭약생산을 위하여 힘찬 생산전투를 벌려나갔으며 동북해방전쟁이 승리하는 날까지 수많은 폭약을 동북민주련군부대들에 보내주었다.

홍남의 로동계급이 만들어 보내준 《황색폭약》은 동북해방전쟁의 치열한 격전장들마다에서 국민당군의 견고한 방어시설들과 영구화점들을 산산이 부서버림으로써 국민당군의 공포의 대상으로 되었으며 동북해방전쟁의 승리를 이룩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35(1946)년 5월 길동분구사령부산하 부대들에 3 000여필의 군복천과 1 000여벌의 군복, 다량의 의약품을 마련하여 보내주도록 하신데 이어 주체36(1947)년 5월에는 민주련군병사들이 신발이 없어 곤란을 겪는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우리 나라의 모든 신발공장들에서 다른 신발생산은 다 중지하고 동북전선에 보낼 신발을 생산보장할데 대한 긴급조치까지 취해주시었다.

그리하여 전국의 모든 신발공장들에서는 중국의 전우들에게 보낼 15만켤레의 신발을 빠른 시일안에 생산보장하기 위한 전투가 벌어졌으며 수많은 신발들을 동북전선에 보내주게 되었다.

동북해방전쟁기간 동북국과 동북민주련군이 조선으로부터 대량의 무기와 군수물자들을 지원받았을뿐아니라 중국공산당 화동국에서도 여러차례 사람을 조선에 파견하여 대량의 작전물자들을 해결해갔다.

주체35(1946)년 여름부터 주체37(1948)년까지 우리 나라에서 중국에 제공해준 군수물자들이 무려 2 000여차량에 달하였다는 사실은 조선인민이 중국인민의 해방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얼마나 사심없는 지원을 보내주었는가를 보여주는것으로 된다.((《포연천리》 중문료영인민출판사 1997년 280페이지)

하기에 국민당군 동북지구 총사령이었던 두를명은 1947년 7월 외국통신원들과의 회견에서 저들이 패전을 거듭하고있는 원인에 대하여 《적군(중국인민해방군)은 확실히...(북조선인)들로부터 무기 및 인재의 원조를 받고있다.》라고 우는소리를 하였다.

조선인민은 또한 동북해방작전의 전기간 우리 나라를 동북민주련군의 안전한 후방으로, 병력과 군수물자수송을 위한 전략적통로로 리용하도록 해주었다.

전략적통로와 후방문제는 적아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는 전쟁과정에 병력과 군수물자수송을 제때에 신속히 그리고 안전하게 보장하여 전쟁의 결정적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하는데서 나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더우기 자기 나라의 경로를 다른 나라의 전략적통로로, 후방으로 열어주는것은 심각한 정치적 및 경제적문제를 산생시키는것으로 하여 어느 나라에서나 쉽게 결심하지 못하는 중대사로 된다.

당시 동북에 진출한 민주련군부대들에 있어서 가장 큰 애로의 하나는 산해관과 금주, 심양, 장춘을 비롯한 대도시들과 북평-심양선철도, 심양-장춘선철도를 비롯한 주요철도망과 도로들을 국민당군이 다 장악한것으로 하여 관내와 동북사이, 남만과 북만사이를 련결하는 통로가 막히게 된것이였다.

이로부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동북국에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실것을 요청하여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중국측의 요청을 받으실적마다 즉시에 우리 나라 명내를 동북민주련군의 안전한 후방으로, 전략적통로로 열어주시는 조치를 취해주시고 그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다 보장해주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고결한 국제주의적조치에 의하여 1946년 10월 료동군구의 환자, 가족들을 비롯한 많은 인원들이 우리 나라 경내를 통하여 안전지대에 소개되었으며 국민당군의 남만진공으로 관내와 동북지방과의 련계가 끊어져 동북이 위협에 빠졌을 때에는 산동성에 있던 인민해방군 부대들이 남포항을 거쳐 동북지구로 이동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36(1947)년초 동북민주련군 부총사령원이었던 주보중으로부터 2만여명의 부상병, 후방인원, 가족들과 2만여t의 전략물자를 조선을 경유하여 안전

지대로 소개시킬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으시고 그 즉시에 해결대책을 세워주시였으며 우리 나라의 남포와 신의주, 만포, 남양 등 주요도시들을 동북민주련군의 전략적통로로 제공하여 그 수송을 보장해주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특히 우리 나라에 주재하고있던 동북국판사처가 자기의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대책들을 세워주시였으며 판사처의 요청에 따라 관내와 남만근거지, 대련으로부터 우리 나라를 경유하여 동만근거지와 북만근거지를 련결하는 네갈래의 룡상 및 해상통로를 개설하도록 해주시였다.

동북해방작전과 관련한 중국의 문헌자료에는 《1947년의 첫 7개월동안에 조선에서는 동북민주련군측을 위해 21만t의 물자를 수송해주었고 그 이듬해 한해동안에는 30만 900t의 물자를 수송해주었다. 또한 조선을 통과한 인원은 1946년 하반기에 18개 부대에 이르렀고 1947년에는 9개월동안에 조선을 경유하여 동북에 들어간 인원이 1만명이상이나 되었다. 그리고 1948년에 남양교두를 통과하여 근 9 000여명의 인원이 두만강을 건너갔고 할빈에서 열리는 신정치협상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많은 민주당파, 무당파, 해외교포대표들이 조선을 경유하여 할빈으로 갔다.》고 기록되어있다.《주보중장군전》 중문 해방군출판사 1988년 521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중국측의 수많은 인원과 군수물자들을 우리 나라에 안전하게 소개하도록 해주시였을뿐만아니라 우리 나라에 소개된 동북민주련군 부상병들을 정성껏 치료해주며 동북지역의 피난민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주도록 국가적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리하여 동북민주련군 부상병들과 중국인피난민들이 우리 나라의 농가들에서 해당한 치료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게 되었다.

자료에 의하면 동북민주련군의 부상병들과 가족, 후방인원들이 조선에 들어온 후 치료를 받다가 5 000여명은 돌아가고 2 000여명은 1947년 6월까지 우리 나라에 남아 계속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료심결전》 상 중문 인민출판사 1988년 627페이지)

당시 우리 나라 형편에서 이렇게 많은 부상병들을 매 가정에 나누어 치료하게 한다는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지만 우리 인민은 모든것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부상자들을 정성껏 치료해줌으로써 그들이 완쾌된 몸으로 동북전선에 돌아가 국민당군과의 전투들에서 위훈을 세우게 하였다.

조선인민의 이렇듯 적극적이고도 사심없는 지원으로 하여 해방전쟁초시기 수세에 물리웠던 민주련군부대들은 전투력을 빠른 시일안에 회복하고 전면적반공격으로 넘어갈수 있게 되었다.

조선인민은 다음으로 동북지방과 관내해방을 위한 수많은 작전과 전투들마다에서 무비의 희생성과 영웅성을 발휘하여 주도적이고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중국인민의 해방전쟁 전기간 조선인부대의 모든 전투원들이 숭고한 국제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모든 작전과 전투마다에서 주동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시였다.

해방전쟁초시기부터 무적의 군력을 떨쳐온 조선인부대들은 전략적방어시기와 전략적공격시기의 수많은 작전과 전투들에서 불멸의 위훈을 세우고 전국을 해방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조선인부대들은 우선 전략적방어시기 견고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완강한 방어전을 벌리는데서 무비의 용감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였다.

1946년 4월에 진행된 제1차 장춘해방전투는 조선인부대의 결정적인 역할에 의하여 승리를 이룩한 대표적인 전투였다.

1946년 3월 중순에 들어서면서 소련군대가 동북의 대도시들에서 철수하기 시작하자 이 기회를 리용하여 장개석국민당군은 심양과 장춘을 점령하였으며 병력을 집중하여 사평의 동북민주련군 주력부대들을 압박하였다. 그리고 5개 사단의 병력으로 장춘이북까지 차지하고 길림, 교하를 거쳐 돈화, 연변지구로 침공하면서 동북의 해방구들을 위협하였다.

조성된 정세는 동북민주련군이 우세한 역량으로 달려드는 장개석국민당군대의 침공을 좌절시키고 사평계선에서 포위된 부대들을 구출하여 송화강동북쪽으로 이동시키는 한편 동만에 이미 창설된 근거지들을 보위하고 그에 의거하여 동북해방전쟁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을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35(1946)년 3월 당시 동북민주련군 부총사령원이며 길로군구사령원 후보중의 요청으로 조선의 최북단 남양에까지 가시어 동북민주련군 주요지휘성원들을 만나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동북민주련군 지휘성원들에게 할바령을 중심으로 한 로야령산줄기와 송화강계선에 견고한 방어진지를 굴설하고 그에 의거하여 적의 침공을 결정적으로 좌절시킬데 대하여서와 북만과 남만의 조선인부대들을 총동원하여 정황에 맞게 병력의 집중과 분산, 견고한 방어진지에 의거한 완강한 방어전과 적배후타격전의 배합 등 다양한 전법으로 적을 타격할데 대하여, 당면하게는 사평계선에 포위되어있는 중국인부대들을 구원하기 위해 장춘해방전투를 진행할데 대한 전술적인 대책안까지 세워주시였다.

이에 따라 길동분구사령부산하의 제1야전군과 포련대를 비롯한 2만여명의 조선인사단은 민주련군의 중국인부대들과 함께 주체35(1946)년 4월 사평계선에서 포위된 립표까지 지휘하는 동북민주련군 주력을 구출하기 위한 제1차 장춘해방전투를 진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장춘해방을 위한 전투임무를 받은 련대장 박락권동지는 련대를 이끌고 주타격방향인 동남방향에서 공격하면서 도시공격전법과 적군와해사업을 능숙히 배합하여 적의 주력집단인 《철석부대》를 소멸하고 도시중심부로 공격성과를 확대하여 장춘해방의 결정적인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조선인부대의 이러한 결정적역할에 의하여 총공격을 개시한지 5일만인 1946년 4월 18일 장춘은 해방되었으며 사평계선에서 포위되었던 동북민주련군의 주력부대는 안전하게 철수하여 재진격의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게 되었다.(중국조선민족발자취총서 5 《승리》 조문 민족출판사 1992년 277페이지)

이 전투에서 조선인부대의 지휘관이었던 박락권동지는 대오의 앞장에서 전투를 지휘하다가 장렬하게 전사하였으며 그가 지휘하는 련대는 《동북의 맹호부대》로서의 위훈을 떨치였다.

조선인부대들은 할바령과 로야령산줄기, 송화강이북지역과 서남지역에서 방어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그에 의거하여 적들의 침공을 물리치기 위한 치렬한 방어전을 벌리였다.

왕청보안련대에 있던 조선인중대는 주체35(1946)년 8월부터 10월까지 할바령에서 연변으로 나가는 국민당군대를 막기 위하여 방어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이 방어공사에서 여러명이 길동군구로부터 특공을 수여받았고 10여명이 큰 공을 세웠다.

조선인부대들이 할바령계선에서 방어축성물공사를 진행한 사실에 대하여 중국도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썼다.

《...공사에 동원된 조선인부대들은 **김일성** 주석의 뜻을 받들어 동북해방전쟁에서 새로운 국면을 마련하기 위한 진지굴설에서 높은 혁명적기개와 불굴의 의지를 과시했다. 그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낼수 있다는 높은 혁명적기개와 불타는 열정을 안고 없거나 부족한 자재와 작업도구들을 자체로 해결하여 토목화점들도 만들었고 삼과 곡괭이에 불꽃을 튀기며 주야분투하여 전호와 참호, 교통호들을 훌륭하게 꾸려놓았다.》

1946년 12월부터 1947년 4월까지 사이에 있는 립강보위작전은 국민당의 남만해방지구에 대한 거듭되는 공격을 막아낸 방어전과 적극적인 반타격전의 대표적인 실례이다.

이것을 일명 3하강남, 4보림강이라고도 하는데 이 말은 아군부대들이 3번 송화강을 넘어와서 적을 치고 립강에 대한 적들의 공격을 4번이나 막아냈다는 의미이다.

3하강남, 4보림강작전에서 휘남현상양 남산고지탈환전투는 조선인부대들이 영웅적위훈을 세운 대표적인 전투였다.

이 전투에서 조선인부대인 독립 4사 3련대 1대대 3중대의 12명으로 조직된 폭파조를 인솔한 분대장은 앞장서서 폭파약을 끌어안고 적의 화점에 가슴을 내대고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불타는 적개심을 안고 조선인부대의 전투원들은 고지를 향해 돌격해올라가 적들을 몽땅 소멸하였다.

그후 이 부대에서는 노래 《지뢰수 조성두용사》와 연극을 만들어 보급함으로써 중국인부대에까지 알려지게 되었으며 전반적인 전투사기를 높이는데 이바지하였다.(중국조선민족발차취총서 5 《승리》 조문 민족출판사 1992년 284~285페이지)

이처럼 조선의 수많은 아들딸들은 무비의 희생성을 발휘하여 국민당군의 남만침공을 격파하고 근거지를 보위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으며 이로 하여 동북민주련군은 적들의 《남공북수》전략을 파탄시키고 동북에서의 전쟁형세를 유리하게 전변시킬수 있었다.

조선인부대들은 또한 동북의 전지역을 해방하기 위한 작전과 전투들에서 언제나 주력으로 활동하였다.

1947년 7월에 들어서면서 동북민주련군에서는 전략적공격으로 넘어갔다.

동북의 전지역을 해방하기 위한 사평해방전투, 길림해방전투, 금주해방전투, 제2차 장춘해방전투, 흑산-대호산전투, 심양해방전투, 영구해방전투 등 수많은 전투들에서 조선인부대들은 영웅적위훈을 세웠다.

특히 수만명의 조선사람들의 피의 대가로 이루어진 사평해방전투의 승리는 국민당군대에게 서산락일의 운명을 가져다주고 동북해방전쟁에서 중국공산당의 승리를 예고하는 신호로 되었다.

사평해방전투는 조선인부대의 용감성, 희생성의 상징으로 되었다.

처음에 동북민주련군을 지휘하던 립표가 동북민주련군의 중국인부대만으로 사평에 대한 공격을 진행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조선인부대들이 다시 공격의 주력을 맡게 되면서 사평시의 3분의 2를 장악하였다.

이렇게 전과를 올렸지만 심양에서 국민당군 5개 사단이 증원해오기때문에 다시 아군은 사평시를 내주고 철수하여 심양과 장춘사이의 도로와 철도를 차단하고 적들을 견제하였다.

동북민주련군이 장개석국민당군대와 1진1퇴의 공방전을 무려 10개월이나 계속하다 나니 아군은 손실을 많이 입었을뿐아니라 전투원들의 사기는 저락되고 전투전망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이러한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사평전투의 실패를 보고받으시고 조선인부대의 지휘관들에게 동북에 있는 전체 조선인부대들과 인민들을 총동원하여 적들에게 숨길 틈을 주지 말고 집중적인 공격을 들이대어 사평해방전투를 빨리 결속하도록 하시었다.

그리하여 동북지방에서 활동하고있던 모든 조선인부대들이 다시 모여왔으며 사평지구에 있던 조선사람들만이 아니라 멀리 연변지구의 조선사람들까지 담가대와 치료대를 무어가지고 사평으로 달려왔다.

동북민주련군은 주도권을 틀어쥐고 장개석군대를 파멸에로 몰아갔으며 최후공격전을 개시하였다.

성시공격의 주타격방향에서 행동한 조선인부대의 장병들은 적들의 발악으로 어려운 정황이 조성될 때마다 대오의 앞장에서 용감성을 발휘함으로써 전투승리에 결정적기여를 하였다.

사평해방전투기간 조선인부대의 공병들은 특출한 위훈을 세웠다.

성시공격부대들의 맨 앞장에서 돌격해들여간 조선인부대 공병들은 희생을 무릅쓰고 적진에 육박하여 돌파구를 열어나갔다.

사평해방전투기간 수많은 조선인부대 장병들이 희생되었는데 그들중에는 적의 포대를 까부시려 폭약을 안고 달려나갔다가 희생된 사람들만 해도 수십명에 달하였으며 어느 한 중대는 전투후 30명밖에 남지 않았다.

사평해방전투에 참가하여 조선인부대 전투원들의 영웅적투쟁모습을 직접 목격한 동북인민해방군의 한 지휘원은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시가의 일목일초도 무심히 대할 수 없을것이다라고 하면서 조선사람들에 대한 찬탄과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하였다.

당시 동북인민해방군(1948년 1월부터 동북민주련군을 동북인민해방군으로 개칭) 총사령원은 조선인부대들의 결정적역할에 의한 사평전투의 승리로 자기의 명성이 높아지게 되자 위대한 수령님께 뜨거운 감사와 높은 신뢰, 존경의 마음을 담아 좁쌀 10만t과 지성 어린 선물을 올리였다.

동북인민해방군의 한 지휘원은 자기의 글에서 《동북해방전쟁기간에 민주련군지휘성원들이 김일성주석께 홍안령산 수달피외투와 사자털돗자리를 선물로 삼가 드린것은 조선속담에 있는것처럼 머리칼을 베어 신이라도 삼아 그분께 보은하고싶은 우리의 심중을 표시하기 위한것이였다.》라고 썼다.

조선인부대 전투원들은 그 이후에 진행된 수많은 전투들에서도 조선사람의 슬기와 기개를 떨치고 무비의 희생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남김없이 발휘하였으며 동북해방전쟁승리에 지울수 없는 공적을 남기였다.

그리하여 수년간에 걸치는 동북해방전쟁은 중국공산당의 승리로 결속되게 되었다.

조선인부대들의 주동적이며 결정적인 역할에 의하여 동북해방전쟁이 중국공산당의 승리로 결속된 후 장개석은 동북전쟁에서 조선사람들이 판을 쳤기때문에 졌다고 실토했다.

중국인민해방군 제4야전군 164사 사단장이였던 왕효명은 조선인부대 장병들앞에서 동북해방전쟁의 승리를 경축하여 연설하면서 《동북지방은 해방되었다. 조선사람들은 동북해방전투에서 기폭제의 역할을 하였다. 군사가 많고 적은것이 전쟁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것은 아니다. 조선사람들이 중국사람들에 비하여 수자는 적었으나 당신들이 아니었다면 동북지방을 해방할수 없었다.》라고 자기의 심정을 그대로 표현하였다.

조선인부대들은 또한 중국관내해방작전에 참가하여 커다란 위훈을 세웠다.

1948년 11월초 중국 동북지방의 가장 큰 도시이며 장개석국민당군대의 총사령부가 자리잡고있던 심양을 해방한 중국인민해방군의 주력부대의 하나인 제4야전군은 만리장성을 넘어 중국관내로 진격해 들어갔다.

제4야전군에 속한 조선인부대들은 평진전역에 참가하여 북평, 천진, 장가구를 해방하며 이어 화동지방에서 회해전역을 벌려 장강이북지역을 완전히 해방하는데도 크게 기여하였다.

조선인부대 전투원들은 동북해방전쟁이 승리적으로 결속된 후에도 관내해방을 위한 수많은 전투들마다에서 위훈을 세워 전국해방의 날을 앞당겨나갔다.

천험의 요새에 의거하여 저항하던 적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엎고 불의적인 공격으로 승리한 장강도하전투와 중경해방전투, 참대돛배로 미국제군함을 격침시킨 해남도상륙전투 등은 조선인부대 전투원들의 무비의 희생성과 용감성, 결정적이며 주도적인 역할에 의해 승리가 이룩된 대표적인 전투들이다.

장강도하시 조선인부대의 전투원들은 대담하게 단풍진의 적을 기습하여 68척의 선박을 로획한데 이어 장강기습의 적을 들이쳐 300여척의 선박을 로획하였으며 희생을 무릅쓰고 아군의 진격로를 개척하였다.

조선인부대의 전투원들의 희생적인 투쟁으로 로획한 각종 배들을 타고 인민해방군 부대들이 장강을 도하하여 적들의 퇴로를 차단하자 적 한개 군단은 스스로 투항하였다.

조선인부대의 전투원들은 장강을 도하한 후 장사, 대용, 중경을 해방하기 위한 전투에서도 위훈을 세웠다.

중국인민해방군 제2야전군 사령원 류백승은 중경해방전투에서 공훈을 세운 제4야전군 47군의 조선인부대 모든 전투원들에게 표창을 주었으며 중남군구 총부에서도 47군에 집체표창을 하였다.

원래 중경을 해방할 임무는 중국인민해방군 제2야전군이 맡았는데 4야전군 47군의 조선인부대들이 중경해방을 도와준데 대하여 매우 감사히 여겨 표창하였던것이다.

중국인민해방군 제4야전군 13병탄 38군, 49군에 속한 조선인부대들도 산해관을 넘어 평진전역에 참가하고 의당전투를 승리적으로 끝냈으며 양자강을 건너 형보전투 등 수십차의 전투를 거듭하면서 하남성, 강서성, 광둥성, 호남성, 광서성, 귀주성들을 련이어 해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외에도 조선인부대의 전투원들은 해남도상륙작전과 해방전투에서 무비의 희생성과 용감성을 발휘하여 선봉대, 돌격대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빛나는 공훈을 세웠다.

조선인부대 장병들이 중국혁명에 이바지한 사실에 대한 이상의 자료는 수많은 전투와 사건들가운데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전 동북민주련군의 한 지휘원은 자기의 회상기에서 《조선인민이 피로써 중국혁명을 도와준것은 진정한 동지, 진정한 전우만이 할수 있는 지지성원이였다. 중국의 광활한 대지에 선혈을 뿌린 혈전만리의 길에서 어느 한 조선인사단은 700명밖에 남지 않은 실례까지 있었다. 중국혁명에 심신을 바친 조선동지들의 헌신과 희생을 늘 잊지 않고있던 모택동주석과 주은래총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중국혁명을 각방으로 지지성원해주신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하고 중국의 오성홍기에는 조선동지들의 피가 스며있다고 하였으니 그에 담긴 의미심장한 뜻을 어찌 잊으랴.》라고 썼다.

참으로 조선인부대의 전투원들은 중국해방전쟁의 나날 동북광야로부터 해남도에 이르기까지 전중국의 광활한 대지위에 수많은 위훈의 발자욱을 남겨놓았다.

3. 결 론

중국인민이 항일전쟁승리후에 진행한 해방전쟁기간 실로 조선인민은 민족적독립을 쟁취한 나라들에서 다른 나라 혁명을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국제주의적 지원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였다.

물론 세상에는 다른 나라에 여러가지 형태로 지원을 준 실례들도 없지 않아 있었다.

하지만 그 지원중에는 국제주의적의리보다 자기 민족의 이해관계에 기초한 타산적인 것이 많았다.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최고의 혁명가적우의로 전쟁의 포연속에 시달리는 중국인민의 고통을 헤아리시고 중국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적극적이고도 사심없는 지원을 주도록 하시였다.

중국인민의 해방위업을 위한 길에서 수많은 이 나라의 아들딸들은 중국대지에 고귀한 피를 뿌리고 꽃다운 청춘을 아낌없이 문었으며 이들이 흘린 선혈은 중국의 오성홍기의 색깔을 더욱 진하게 물들이고 조중친선의 화원을 아름답게 꽃피운 귀중한 영양소로 되었다.

하기에 1950년 7월 중국의 주은래총리는 우리 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대리대사를 파견하면서 《당신들은 김일성동지를 만나게 되면 조선의 당과 인민이 우리가 곤난한 처지에 처하였을 때 우리를 방조한데 대하여 감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력사상 조선동지들이 중국혁명에 이바지한 사실은 당신들도 다 잘 알고있을것이다. 그러므로 중조인민의 친선은 아주 깊다. 조선동지들이 우리가 곤난한 때 우리에게 준 방조를 우리는 언제나 잊지 않을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정녕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해방후 새 조국건설의 것처럼 어려운 조건에서 사심없는 지원으로 위기에 처한 중국혁명을 피로써 도와준 조선인민의 참다운 국제주의정신과 공적에 대하여 력사와 인민은 영원히 잊지 않고 대대손손 전해갈것이다.

실마리어 《중쏘우호동맹조약》, 조선인부대, 동북해방전쟁